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2021년 4월 1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주원철(044-201-2031), 사무관 이창학(2032) / 제공일: 4월 13일(총 2매)		

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해외 주재관 영상회의 개최
-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 및 국제기구 동향 논의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**(일시·장소)** 2021.4.14(수), 14:00~16:10, 농식품부 중회의실(영상)

◈ **(참석)** 장관(주재), 해외 주재관 14명, 농식품부 직원

◈ **(내용)** 주요국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 공유 및 농업분야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논의

❑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4월 14일 해외에 파견된 농식품 분야 주재관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주요국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'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회의'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해외 주재관 14명은 미국, 벨기에(유럽연합), 중국, 일본 등 농식품 관련 주요 국가의 현지 대사관과 세계무역기구(WTO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등 국제기구에 파견된 이들로, 주재국 정책·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회의·협상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○ 이번에 열리는 주재관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중립에 관하여 주재국의 농업정책 및 국제기구와의 농업협력 방안을 주재관들과 농식품부 직원들 간에 공유한다.

❑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타지에서 근무하며 주재국 동향 파악과 정책 분석을 통해 농식품부 정책 수립을 지원한 주재관들을 격려하고,

○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논의가 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피포지(P4G)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상황을 상기하며 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.

* 피포지(P4G):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

❑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이번 해외 주재관 회의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정책 접점에서 일하는 주재관들과 농식품부 간에 정책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, 국내 농업정책 주안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재관 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